

“올해부터 달라지는 전주시 제도 확인하세요”

시, '세계·부동산'·'교육·보육'·'안전·행정' 등 총 8개 분야 47개 항목 수록한 책자 발간

올해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도 늘어났다. 또 경제활동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인·한부모에게도 본인 소득과 재산만 충족하면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전주 한옥마을에 공유운송차 '다가온'이 운행되고, 전라감영 문화콘텐츠와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처가 늘어나는 등 국가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진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11일 밝혔다.

이 책자는 ▲세계·부동산 ▲교육·보육·가족 ▲안전·행정 ▲보건·복지·환경 ▲문화·관광 ▲경제·사회적경제 ▲국토·교통 ▲농·축·수산·식품 총 8개 분야 4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세계·부동산
먼저 세계·부동산 분야를 살펴보면, 1세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로 위해 공사가 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 5개로 구성된 주민세 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납

는 8월로 통일된다.

▲교육·보육·가족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청소년이 기획·운영하는 전주형 창의 교육 야호학교가 인후동으로 신축 이전돼 전주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된다. 전주시 대표공공임인 덕진공원 내에는 다양한 모험을 즐기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는 덕진공원 야호 탐험숲하우스도 운영된다.

▲안전·행정
안전·행정 분야의 경우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전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이 확대된다. 기존 종이서류로 배부되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는 모바일로 고지된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지문스캐너를 이용한 전자적 지문등록으로 변경돼 선명한 지문채취가 가능해지고 발급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환경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노인·한부모 가족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으며,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도 보국수훈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늘어난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사업 대상이



전주시는 '2021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사업 지역이 전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된다.

▲문화·관광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

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0만원으로 상향되고, 전라감영의 역사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경제·사회적경제
경제·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과 온두레 공동체 활동공간이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
국토·교통 분야의 경우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처 확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 확대 ▲한옥마을 공유운송차 '다가온' 운행 등이 시행된다.

▲농·축·수산·식품
끝으로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이 운영돼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가 추진되며, 기존까지 농가에만 지급되던 공익수당은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 게시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 시민 의견 반영

시민공론화위원회, 23일 시민참여단 속의토론회 진행

전주시민들이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직접 찾아가는 속의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 이하 위원회)는 이날 전일고등학교에서 시민참여단(120명) 속의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초 시민참여단 사전교육과 속의토론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연기됨에 따라 이날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속의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론화 이해, 속의토론회 역할, 시나리오워크숍 경과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과 자료집을 만든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시민참여단에 영상과 자료집을 배포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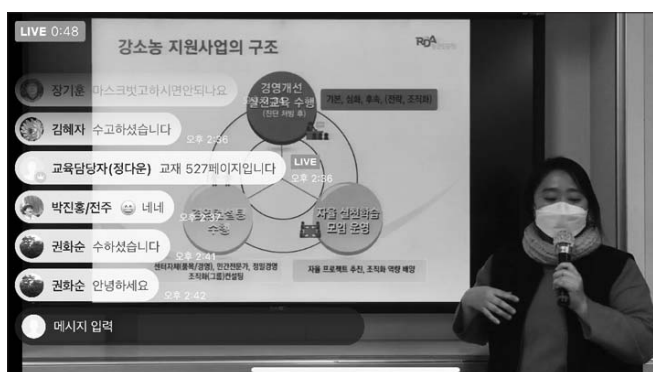
속의토론회는 전일고등학교 13개 교

실에서 12명씩으로 나눈 10개 조가 분임토의와 전체토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속의토론 결과를 가지고 시민 의견으로 도출한 결정(안)을 전주시에 권고하게 된다.

이양재 위원장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토의 장소 분리와 온라인 비대면 방식 활용 등을 계획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공론조사 진행과 관련 중립적 위치에서 전주 시민들의 공정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시민의금1963추진단(063-281-2712, 2713)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11일 농업인 및 도시민 12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2021 농사형통 새해농업설계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평생학습대학 프로그램 공모

3대 가족 현역복무 '병역명분기' 접수

전주시, 18일까지 4개 분야 30개 프로그램 이메일로 접수

전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참신한 '온라인 평생 학습대학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한다. 평생학습대학은 기존까지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됐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대체 운영된다.

모집 분야는 ▲문화예술 ▲인문교양 ▲직업능력 ▲생활문제 등 4개 분야 30개 프로그램이다.

자격 요건은 원격 수업이 가능한 평생 학습 강사로, 해당 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관련 강의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제안서와 시범 강의 영상을 첨부해 이메일(jnewsroom@korea.kr)로 신청하

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평생학습관(063-281-53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검토에 들어간 뒤 오는 25일 선정된 제안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선정되더라도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60% 미만인 과목의 경우 폐강될 수 있다.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온라인 평생학습대학을 통해 시민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병무청, 2월 10일까지 집중 접수기간 운영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2021년도 병역명분기 선정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병역명분기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병역명분기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분기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 이행 풍토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내 병역명분가는 188가문 972명이 선정됐다.

병역명분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춰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탈-민

원서식-신청서/구비서류-병역명분기 신청서) 또는 전북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명분기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분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분기 명예의 전당에 게시한다.

이와 더불어 병역명분가는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900여 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명분기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3-281-3227)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농사형통 새해농업설계교육

전주시, 농업인 소득 향상·영농계획 수립 돕기 위해 온라인 진행

전주시가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도울 맞춤형 교육을 시작했다.

시는 11일 농업인 및 도시민 12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2021 농사형통 새해농업설계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열린 교육에서는 달라지는 농업정책과 알아두면 좋은 농업정보 등이 소개됐으며, 전지푸드 이해와 성공 전략에 대한 강연도 펼쳐졌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콩, 복숭아, 대추, 마늘 등의 품목별 관리기술과 농산물 소비트렌드 변화, 약초채소 재배 교육과정 등에 대해 총 8회에 걸친 교

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 방문해 교재를 수령하면 되며, 네이버밴드에 가입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70% 이상 교육을 수강한 경우 이수증이 발급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1년 새해농업설계교육을 통해 전주시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새로운 농업정책과 영농기술을 습득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농업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js.or.kr *전자우편 : jvjs@hanmail.net

